

‘공강커플’에 눈호강…시청률 절로 오르네

〈공효진-강하늘〉

이보다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공효진과 강하늘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에서 완벽 그 이상의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낸다. 공효진은 끝면 강하늘이 미는 환상의 호흡이다. 공효진은 역시 ‘공효진’이고, 강하늘은 무한한 잠재력을 드러내며 스크린에 이어 안방극장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다. 단연전대, 현재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괄목상대…“강하늘 맞아?”

강하늘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 기대 이상의 열연으로 ‘믿고 보는’ 연기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영화계가 먼저 알아본 무한의 성장 가능성을 안방극장에서도 입증하며 이전까지 활약상을 넘어서었다는 평가다. 시골경찰 황용식 역을 맡아 순박하고 우직한 매력을 강력한 힘으로 발휘하고 있다.

2006년 뮤지컬 ‘천상시계’로 데뷔한 강하늘은 초반 무대 공연에 주력하다 2012년 드라마 ‘아름다운 그대에게’와 2013년 ‘상속자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미생’과 2016년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로 활동을 이어갔다. 스크린에서는 일찌감치 재목으로 주목받았다. ‘청년경찰’ ‘동주’ ‘스물’ ‘재삼’ 등 코미디부터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이끌며 다양한 얼굴로 변신했다.

셋길로 빠지지 않고 정식으로 차곡차곡 쌓은 실력을 ‘동백꽃 필 무렵’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다. 맞춤형처럼 황용식 캐릭터가 그의 몸에 착 감겼었다. 걸쭉한 충청도 사투리 구사로 귀를 사



‘동백꽃 필 무렵’의 주인공 동백과 황용식을 연기하는 공효진(왼쪽)과 강하늘. 완벽한 앙상블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완성하는 두 배우의 활약에 드라마도 인기를 얻고 있다.

로잡은 뒤 눈의 즐거움을 안긴다. 극중 주위 시선에 개의치 않고 공효진을 향해 애정을 쏟는 순정파로 변신해 여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고 한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시장 아줌마들과도 거리낌 없이 지내는 능청스러운 녀석꾼의 모습으로 너털웃음을 짓게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기 위해 한 번씩 ‘상남자’ 기질을 발동하며 남성미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귀여운 이미지부터 카리스마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없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해가고 있다.

●명불허전…“역시 공효진!”

실패란 없다. 공효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방송 전만 해도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를 주로 해온 탓에 시청자는 물론 스스로도 피로감을 걱정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청자는 ‘역시’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비슷한 분위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공효진 장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를 거치면 어떤 캐릭터라도 더욱 빛을 발한다는 칭찬이 잇따르고 있다.

극중 공효진은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홀로 키우며 동네의 작은 술집 까멜리아를 운영하는 동백으로 나온다. 미혼모라

는 편견 속에서 모진 풍파를 견뎌낸 강당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엄마이자 딸, 그리고 사랑받는 여자의 감정 변화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데 타고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공효진이 동백이다’는 반응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임상춘 작가의 대본을 입체적으로 완벽히 표현하고 있다.

공효진 하면 빠지지 않는 패션도 그의 ‘스타성’을 보여준다. 자신이 아닌, 캐릭터가 돋보일 수 있는 정확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센스를 빼놓을 수 없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충청도 배경 가상도시 ‘웅산’…알고보니 포항 구룡포였네

‘동백꽃’ 궁금증 3가지

‘동백꽃 필 무렵’은 로맨스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지만 미스터리와 스릴러 장르의 요소도 풍긴다. 그 핵심은 동백(공효진)을 옥죄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의 정체다. 어린 동백을 버렸던 ‘동백엄마’(이정은)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의 정체를 둘러싸고도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여러 차례 등장한 찰진(?) 육설에 대한 방송심의 여부도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키운다.

●결맞으면 ‘육갑’ 방송심의에 안 걸릴까?

덕순(고두심)은 동백에 푹 빠진 아들 황용식(강하늘)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소리친다. 마을 주민 홍자영(염혜란)은 남편(오정세)의 카드명세서에 적힌 ‘MT’가 대학교 MT인줄 알았다 모델의 약자인 줄 알고는 “개새끼”라고 분노한다. 이정은의 “개년”, 강하늘의 “육갑 떠네” 등 귀를 의심할 만한 거친 육설과 비속어가 종종 등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에는 ‘저속한 조어 및 육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지상파방송팀 김혜란 씨는 17일 “해당 육설과 관련해 민원 접수가 아직 없으며, 안전상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프로그램 특성,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까불이만? 동백엄마 정체도 수상해!

열혈 시청자의 호기심은 ‘까불이’만큼 ‘동백엄마’의 정체에도 쏠려 있다. 방송 전까지 드라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 평화로웠던 분위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치매 증상을 보



동백엄마 역 맡은 이정은

이다가도 말쑥한 정신으로 돌아오는 그에 대해 시청자들은 일부러 치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한다고 추리한다. 또 ‘비카스’를 끊임없이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갖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까불이’의 ‘시그니처’ 멘트인 “까불지마”와 비슷한 “왜 이렇게 까불어 짜증나게”라고 한 장면을 두고도 그가 ‘까불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웅산에는 계장거리가 없다?

드라마는 충청도를 배경으로 가상의 도시인 웅산을 무대로 한다. 임상춘 작가가 ‘웅산’이라는 어감이 마음에 들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경북 포항의 구룡포 일대에서 촬영하고 있다. 구룡포 일뿐만이 가족거리 등이 들어선 문화특화마을이다. 극중 ‘계장거리’로 설정됐지만 포항에서는 꽃게가 잡히지 않아 이곳에는 드라마 속 계장 음식점이 없다. 극중 식당의 꽃게 장식품은 물론 간판 모두 미술작업을 거쳤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제작사는 도시의 특성을 ‘변환’할 수밖에 없어 포항시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 ▶며칠 차고있어 보니 부드럽고 시원해서 좋구나!
- ▶무릎이 편하면 만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物)에너지 무르팍엔 찰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겹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릎이 편하면 룯노래가 절로 나온다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평범하지 않은 중년을 위한 주름개선 미백크림 와~ 주름개선 정말 좋구나! 바로고 확인해보세요

주름이 없어야나이가어리게 보입니다.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부러움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힘이 됩니다.



어떤 명품크림들과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50~60대가 되면 예쁘다는 말보다 피부가 좋다. 나이에 비해 젊어보인다. 동안이라 라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연예인들을 봐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투명하고 주름없는 피부가 눈에 띄는데 돈이면 누구나 다 한다는 식으로 포기하고 막연히 부러워만 하실건가요? 우선 나이가 어려보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름이 없어 야 하고 노화원상인 주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주름의 수가 달라지고 보이는 나이가 바뀌게 됩니다. 최근 시남해인항원협동조합과 주에이스제약과 공동연구개발한 장보고 항원크림은 항원나무 추출액을 함유한 주름개선, 피부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얼굴주름은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나게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탄력이 생겨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탱탱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피부가 고요하면 캔시리 외출하고 싶어진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의 전용크림 고귀하신 분들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세트: 장보고 항원크림 2개 + 항원미용어는 1개 *판매처: 시남해인항원협동조합 *용량: 70g/개 *제조원: 주메이제약

남녀공용입니다. 중년 남성에게도 너무 좋아요~

피부가 고요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더 쳐다본다 상담문의: 주름개선 항원크림 1600-2865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다
-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착용해보시고 확인하세요!

전기 없이 스스로 체온과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따따 발열밴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광물질(젤라이트, 그라파이트, 질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물질이고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밝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겹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따따1600-1047